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22-6호
 2022년 3월 31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 2021년 중국 택배 유형별 업무량 및 매출규모 비율

유형	업무량	매출규모
타지역 택배 (异地快递)	85.0%	50.6%
도시내 택배 (同城快递)	13.0%	7.9%
국제택배	2.0%	11.3%

자료: 중국 국가우정국, 『2021年邮政业运行情况』

주: 매출규모의 30.2%는 기타 유형

▣ 2021년 중국 도시별 택배 업무량 (억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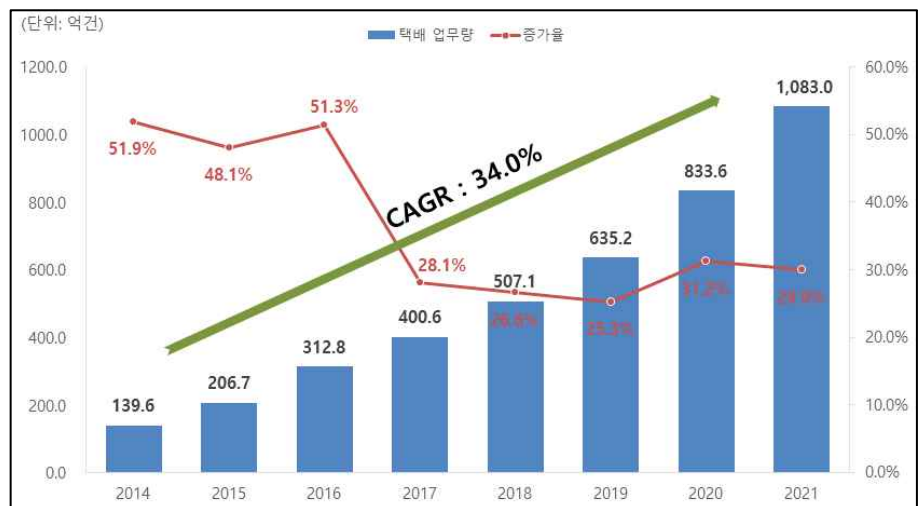
순번	지역	업무량
1	진화시(이우)	116.4
2	광저우시	106.8
3	선전시	59.8
4	상하이시	37.4
5	항저우시	36.7
6	지에양(揭阳)시	35.2
7	동관(东莞)시	26.8
8	쑤저우시	24.7
9	베이징시	22.1
10	취안저우시	21.7
	합계	487.6

자료: 상통.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시장



자료: 중국 국가우정국(<http://www.spb.gov.cn/>), 『邮政业运行情况』, 각 호 공보

2021년 중국 택배량 1,083억 건, 전년 대비 29.9% 증가

2021년 중국 택배기업들의 택배 업무량은 전년 대비 29.9% 증가한 1,083억 건을 기록했다. 중국의 택배 업무량은 2014년~2021년 연평균 3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1년 택배업의 매출액(업무수익)은 전년대비 17.5% 증가한 1조 332.3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을 업무량을 나눈 건당 매출액은 2014년 14.7위안에서 2017년 12.4위안, 2021년에는 9.5위안까지 하락되어 택배업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택배 유형별로는 2021년 타 지역 택배 업무량이 전체의 85.0%로 전년 대비 비중이 2.8% 포인트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 내 택배 13.0%, 국제택배(홍콩·마카오·대만 포함) 2.0%를 차지했다. 도시 내 택배 및 국제택배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6%포인트와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동부지역의 택배 업무량 비중이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택배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각각 14.6%와 7.3%의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별 택배 업무량을 살펴보면 소상품 무역이 가장 활성화된 진화시(이우)시가 116.4억 건으로 가장 많으며, 2019년부터 연속 3년 중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저우시가 106.8억 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전시 59.8억 건, 상하이시 37.4억 건, 항저우시 36.7억 건 순으로 3~5위를 차지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저자

김은우 부연구위원

KMI 중국연구센터

이슈 포커스: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중국 교통운수부는 2022년 1월 29일 「수운 '14·5' 발전계획(水运“十四五”发展规划)」(이하 「'14·5' 계획」)으로 약칭함)을 공식 발표했다. 「'14·5'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요강」 및 「교통강국건설 요강」,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계획 요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4·5' 종합 교통운송체계 발전계획의 전반적 방향을 반영해 제정되었다.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14·5' 계획」에 담겨져 있는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정책의 주요 방향, 목표, 중점 추진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14·5' 계획」 주요 정책방향

수운부문에서 이미 고품질 발전단계에 진입한 중국은 국내외 새로운 정세에 따라 교통강국 건설 가속화, 현대화 고품질의 국가종합 입체교통망 구축에 대해 새로운 수준의 보다 높은 도전을 하고 있다. 중국의 수운산업은 높은 국제화 수준과 저탄소 친환경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종합교통체계의 중요한 채널 및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타 운송수단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4·5' 기간 중 중국의 수운산업은 단점 공략, 혁신 추진, 개혁 심화라는 핵심 단계에 진입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14·5' 계획」에서 주요 정책방향을 △ 지원역할 강화 △ 혁신 추진 △ 통합 조율 강화 △ 개방-융합 촉진 △ 녹색·안전 지속 추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역할 강화. 중국의 국가 중대전략과 교통강국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해 수운 대통로, 항만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현대화 물류 발전 촉진, 경제안보 보장, 서비스 고품질 개방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혁신 추진. 뉴인프라(新基建) 및 정보기술 발전 기회를 활용해 중점분야와 핵심부분의 혁신과 응용을 강화하며, 수운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고 “수운+”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통합 조율 강화.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부응해 경제·산업·도시와 수운을 연계한 종합발전을 추진하고 계획에 의한 시행을 강화하며, 발전의 중점은 부각시키고 시설의 단점은 보완한다. 또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효과를 증시하며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수운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개방-융합 촉진. 중국내시장을 기반으로 개방 발전을 지속하며, 해상 및 육상으로 양방향 개방 수준을 제고한다. 동시에 수운의 국제 영향력과 내륙

1)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 '14·5' 발전계획(水运“十四五”发展规划)」 전문을 기반으로 작성
https://www.mot.gov.cn/zhuanti/shisuiwujtysfzgh/202201/t20220129_3639066.html(검색일:2022.1.30.)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배후지역에 대한 파급능력을 제고한다. 수운 및 철로, 도로, 파이프라인 등 기타 운송 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녹색안전 지속 추진.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라는 기본적인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녹색발전 이념을 실천하며 해안선, 토지, 해역 등 자원을 집약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며, 수운의 안전 및 비상사태 지원능력을 강화한다.

2 「145」 계획」 발전목표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145' 기간 중국의 수운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중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운 화물량과 항만 물동량은 각각 85억과 164억 톤으로 연평균 약 2~3% 증가, 이중 연해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억 TEU로 연평균 5.5%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화물 중 컨테이너, 원유, LNG 등 수요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석탄과 철광석 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로 관광 여객 수송량은 빠른 증가세가 예상되며, 이 중 크루즈 여행과 국내 레저여행, 도시관광, 친수레저관광 등 여행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5」 계획」은 2025년까지 안전·편리·고효율·친환경·경제적인 현대 수운체계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수운 인프라의 미비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첫째, 인프라 강화. 약 5,000km의 내하 항로를 신설·개선하며, 이 중 약 2,500km는 국가 고등급 항로로 신설해 내하 주요 항만들을 기본적으로 연결한다. 항만 인프라를 강화하며, 연해 대형 전용 터미널의 시설확보율을 110% 이상으로 설정하고 내하 항만은 전문화, 집약화 발전 수준을 제고한다. 항만 배후 연계운송체계의 단점을 개선하며, 창장 간선 주요 항만의 철도 인입율은 100%, 연해 주요 항만의 철도 인입율은 90% 이상을 실현한다.

둘째, 운송서비스의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컨테이너, 원유, 광석, LNG 등 주요 화물의 운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컨테이너 간선항의 글로벌 연계성을 제고한다. 철도-수운 복합운송을 대폭 발전시켜 복합운송 컨테이너 물동량을 연평균 15% 증가시킨다. 수상 여객 운송의 다각화 발전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충저우해협(琼州海峡)²⁾의 해운-항만 일체화를 추진한다.

셋째, 혁신스마트 수준 향상. 수운분야의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역량을 제고한다.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의 응용을 확대하고 스마트 항만 및 디지털 항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넷째, 친환경안전 수준 제고. 톤키로 기준 수운의 화물 수송 비중을 높이고 항만 배후 운송방식을 도로운송에서 철송 및 수운 방식으로 전환하며, 철광석의 도로 운송비율을 낮춘다. 안전 보장과 응급 구조체계에서 수운의 역할을 개선하며, 위험 방지능력과 비상사태 대응 수준을 제고한다.

2) 광둥성 레이저우(雷州) 반도와 하이난다오 사이에 위치한 총 길이 약 80km, 폭 약 29.5km의 해협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다섯째, 지원주도 역할 강화. 진지(津冀, 텐진·허베이), 창장삼각주,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항만군의 종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글로벌 해운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 국내외 쌍순환 원활화를 위한 상하이 등 국제 허브항과 창장·시장(西江) 황금수로의 지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 최적화 조정에 대한 수운의 촉진 역할을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터미널 운영사, 선사 및 물류기업을 육성하며,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5년에는 세계적인 교통강국 건설을 뒷받침하는 안전·편리·고효율·친환경, 경제적인 현대수운체계를 기본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하 수운은 2.5만km의 국가 고등급 항로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의 국가종합입체 교통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끔 한다. 연해항만은 국가 발전의 핵심, 글로벌 해운·물류 체계의 허브로 입지를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세계 일류 강항(强港)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표 1] '14·5' 기간 중국의 수운발전 주요 지표

지표	2020년	2025년	증가
신설·개선 내하 항로(km)	/	/	약 5,000
#신설 국가 고등급 항로(km)	/	/	약 2,500
연해 대형 전용 터미널의 시설확보율(%)	>100	>110	/
연해 주요 항만 철도 인입율(%)	>90		/
철도-수로 복합운송 '컨'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15		/

자료 : 중국 교통운수부, 상동

3 「'14·5' 계획」 중점 추진과제

'14·5' 기간 중국 교통운수부는 2025년까지 안전·편리·고효율·친환경·경제적인 현대 수운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 고등급 항로 중점 건설

고등급 항로를 핵심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창장 간선과 시장(西江)간선, 징항운하(京杭运河) 등 수운 대통로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표준 미달 고등급 항로를 정비하며, 운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고등급 항로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항로와 공공 묘박지, 중서부 지역의 저수지·호수 구역 거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부두 건설에도 힘쓴다.

2) 고수준의 항만허브 구축

일류 기준을 견지하고 국제 허브항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 기능과 지원능력을 향상시키며, 높은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수준의 항만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진지(津冀), 창장삼각주, 웨강 아오대만구에 세계적인 항만군을 건설하여 정부의 중대한 지역전략 시행을 지원한다. 입출항 항로, 방파제, 묘박지 등 공공 기초시설 건설에 중앙 재원을 증점적으로 지원한다. 연해 전용 터미널 및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며, 내하 항만의 전문화규모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제 허브항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항만의 고품질 협동 발전을 추진하며, 임항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3) 고품질 복합운송 발전 추진

일체화 융합화 발전 요구에 따라 통합계획을 강화하고 항만 허브 일체화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배후 철도시설 건설 강화, 배후 도로운송 연결수준 제고, 내하 연결 운송체계 개선을 통해 항만의 배후 운송체계를 완비한다. 컨테이너, 철광석, 석탄, 철강 등 화물의 철도-수로 복합운송과 수수(水水) 환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복합운송의 질적 발전을 촉진한다. 항만 배후 운송방식은 도로에서 철송으로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4) 고수준의 수운 발전 추진

현대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요구에 따라 현대 물류를 발전시키고 내하 운송 선박의 표준화 및 전문화 수준을 제고한다. 여객 서비스 상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며, 수로 운송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한다. 대형 항만을 기반으로 토털물류와 공급사슬 물류를 적극 발전시키고 콜드체인, 자동차, 화공 등 전문물류의 발전을 추진한다. 선박의 수송능력 구조를 최적화하며, 수운의 전문화 수준, 해운기업의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5) 혁신 주도형 스마트 수운 新발전 견인

혁신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운 뉴인프라를 추진하며 5G,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수운 산업에서 심도 있게 적용한다. 또한 생산운영 스마트화, 공공서비스 편의화를 촉진하고 수운의 스마트화 발전 수준을 제고한다. 스마트항만을 건설하며, 디지털 항로 건설을 전면 추진한다. 스마트 수운의 핵심 공통 기술, 선도 기술, 파격적 기술 등과 관련하여 전향적 연구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구축하고 선박장비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6) 녹색안전 新발전 추진

자원의 집약적, 효율적 이용과 생태복원을 강화하며, 항만과 선박의 오염방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육상 전력 시설 사용을 상시화하고 항만의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선진 기술 도입 및 응용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항만·선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며, '평안중국' 건설 이념을 수운 발전에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안전한 항만과 안전한 항로를 건설한다.

7) 수운 국제경쟁력 제고

해운·항만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운과의 연계성 및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해운선대 규모구조를 최적화하고 선박 장비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등 해운선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해운·항만·해사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교통 분야의 국제경쟁력 구축을 지원한다. 현대적인 해운·항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며, 창장삼각주 글로벌 해운허브 구축을 지원한다.

8) 관리 능력 및 수준 제고

관리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운산업 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시장과 정부의 효과적인 결합을 추진하며 업종 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수운업의 발전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법률 및 법규를 개선하고 표준 제정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적 보장을 강화한다. 해운·항만 인프라 유지보수 강화, 해운시장 관리조정 강화, 수운 신용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업계에 대한 관리 및 개혁을 심화한다. 또한 중대전략 연구 강화,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등 기초사업을 강화한다.

[표 2] 「수운 '145' 발전계획」 8대 중점 추진과제

순번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고등급 항로 중점 건설	① 수운 대통로 확대 및 업그레이드 ② 수로망·지류의 고등급 항로 원활화 및 확장 ③ 운하 연결공정 안정적 추진 ④ 국경지역 국제통항 하천 항로 건설 통합 추진 ⑤ 관광항로 시범사업 적극 추진
2	고수준의 항만허브 구축	①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 건설 ② 항만 발전수준 제고 ③ 항만의 지원역량 강화
3	고품질 복합운송 발전 추진	① 항만허브 일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항만의 배후 운송체계 완비 ③ 철도-수상 복합운송 대폭 발전 ④ 수수(水水) 환적 개선 및 최적화
4	고수준의 수운 발전 추진	① 현대물류 발전 가속화 ② 선박 수송능력 구조 최적화 ③ 수운의 전문화 수준 제고 ④ 해운기업의 서비스역량 제고 ⑤ 수로 여객운송 서비스 품질 제고
5	혁신 주도형 스마트 수운 新발전 견인	① 스마트항만 건설 ② 디지털 항로 건설 전면 추진 ③ 과학기술 혁신역량 구축 추진 ④ 선박장비 기술 업그레이드 추진
6	녹색안전 新발전 추진	① 자원의 집약적, 효율적 이용과 생태 복원 강화 ② 항만 및 선박 오염방지 강화 지속 ③ 저탄소 친환경 항만·선박 에너지 체계 구축 ④ 안전한 수운 건설 가속화
7	수운 국제경쟁력 제고	① 해운·항만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 제고 ②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완비 ③ 해운 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 ④ 해운·항만·해사 국제협력 심화
8	관리 능력 및 수준 제고	① 법제도적 보장 강화 ② 업종 관리 및 개혁 심화 ③ 기초사업 강화

자료 : 중국 교통운수부, 상동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
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9)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상기 8대 중점과제에서 제시된 세부 추진과제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과제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주요 발전전략을 정리하면 '145' 기간 중국은 진지(津冀), 장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에 세계적인 항만군을 건설할 계획이다. 저우산, 칭다오, 양푸는 선박연료 공급, 선박수리 등 국제 선박서비스업, 상하이와 천진, 양푸는 선박연료 공급, 선박수리 등 국제 선박서비스업, 상하이는 첨단 해운 서비스업, 닝보저우산은 특화된 해운 서비스업과 글로벌 해운항만 자원 조달 역량을 발전시킨다. 특히, 상하이에 각종 국제 및 국가급 해운기구를 유치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해운 싱크탱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무역 운송권을 적극 확보하고 중점 물자 운송 비중을 제고하며, 해운서비스 무역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 및 국제 경쟁력을 구비한 해운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양산 심수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의 대외무역 컨테이너에 대해 연안운송권을 동등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해운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선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내 크루즈 발전을 촉진하며 전용 선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대형 해운·항만·물류 기업과 국가 석유, 철광석, 곡물 등 중점물자 수입 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중점물자 운송 비중을 높이려 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보장력 있는 현대 국제 물류 공급사슬 체계를 구축해 중점 물자와 중요 운송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 친환경 스마트 해운 선대를 구축하며, 선박 장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항만 건설 분야에서는 터미널의 스마트화 수준 제고가 예상된다. 중국은 '145' 기간 차세대 자동화 터미널을 건설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적용해 항만, 해운, 무역 등 데이터를 통합한 항만 '스마트 브레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BIM+GIS기술을 항만에 적용해 전 생애주기 디지털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컨테이너 간 선항을 중심으로 항만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해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운 분야에서는 핵심 공통 기술, 선도 기술, 파격적 기술 등과 관련한 전향적인 연구와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스마트 수운 평가체제와 표준체제가 구축되고 스마트 수운의 통용 및 핵심 기술 표준 제정이 추진된다. 산학연 협동 혁신 플랫폼과 스마트항만, 디지털항로, 스마트해운, 수상안전, 오염방지 등 중점 연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스마트 운항 시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안전 분야에서는 항만 해안선 자원의 집약적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해안선 자원절약 이용 평가지표 구축 모색을 장려한다. 수운시설 생태보호 및 복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절수 신기술과 신공법의 응용을 확대하고 항로 준설토, 시공자재, 폐자재 종합 이용을 추진한다. 또 내하 항로의 해안, 해변 생태보호, 인공어초 등 생태복원 조치시행을 확대한다. 항만 및 선박의 오염방지를 강화하며, 중점 수역의 산업 환경영향 모니터링 조기경보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1년 중국 택배 시장
- ▶ 이슈 포커스 : '145' 기간 중국의 수운 발전계획 및 시사점

역량을 구축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탄소 친환경 항만-선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상전력시설의 상시화 사용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부두와 선박은 법규에 따라 육상전력 시설과 수전시설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크루즈선의 육상전력 사용을 점차 추진하고 컨테이너, 여객, 로로, 대형벌크 등 부두와 선박의 육상전력 사용률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LNG, 전기, 수소 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선박 연구 개발과 적용을 장려한다. 항만의 친환경 지표와 작업 조건, 항만의 에너지소비 및 환경통계 보고 제도와 체계를 완비한다. 항만 내 청정에너지 사용 수준과 효율을 높이고 풍력, 태양광 등의 발전 기술을 적용한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이 해상 실크로드 연선 항만의 투자, 건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세계 일류의 터미널 운영업체, 종합물류서비스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항만연맹, 실크로드해운연맹 등의 설립을 지원하고 해운-항만 국제 교류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중국은 국제 해사 조직과 협력을 강화하여 해사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할 전망이다. 중국 국내외 우수 해운-항만 과학연구기관에 공동 연구실(연구센터) 설립을 독려하고 주변국과의 해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법규부분에서는 '145' 기간에는 항만법을 비롯해 해상법, 국제해운조례, 항로관리조례 등 많은 법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유지 보수, 스마트항만, 스마트항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안전과 응급 등 분야의 표준 제정이 강화된다. 또한 리튬배터리 등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선박의 기술 법규를 제정할 계획이다. 항만 항로의 친환경 발전 표준체계를 완비하고 표준화 관리체계 개혁을 심화하여 강제성 표준의 제정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원유, 컨테이너, 철광석, LNG 등 중점물자 수송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고 선대 수송능력의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하며 해운기업의 경영을 규범화 한다. 선박의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선박 건조 기업과 선박 건조 단계의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시사점

중국은 '145' 기간 일류의 종합교통 시설네트워크, 운송기술, 관리, 운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2025년까지 안전·편리·고효율·친환경·경제적인 현대 수운체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운분야는 종합교통 '4개 일류' 목표에 맞추어 '145' 기간 단점 보강, 융합 촉진, 서비스 제고, 혁신 강화, 녹색 전환, 개혁 심화에 중점을 두고 일체화 융합발전, 혁신 드라이브 정책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5' 기간 중국은 국제 경쟁력을 구비한 해운기업과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사와 종합물류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며, 텐진-허베이, 창장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에는 세계적인 항만군을 건설하는 등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해운-항만 분야의 많은 법제도를 개정하고 스마트, 친환경, 안전과 관련된 표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



CONTENTS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항만 분야에서는 생산운영에 중점을 둔 스마트화 수준 제고, 스마트 브레인 구축, 스마트항만 물류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해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스마트수운 분야에서는 전향적인 연구와 과학기술 프로젝트, 스마트 수운 평가 및 표준체계 구축, 통용 및 핵심 기술 표준 제정이 추진된다. 스마트 운항 시범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스마트 해운선대 구축도 추진된다. 녹색·안전 분야에서는 해안선 자원절약 이용 평가지표 마련, 저탄소 친환경 항만·선박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한편, 글로벌 해운 싱크탱크로서 상하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해외 우수 해운·항만 과학연구기관에 공동 연구센터 설립도 장려되고 있는바 정책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녹색, 스마트 해운, 항만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며, 한중 30주년을 계기로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총괄·감수: 한광석 센터장
작성 : 김은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